

벤처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 기 환*

The Promotion Policies of High-Tech Venture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Ki-Hwan Lee

〈 목 차 〉

Abstract

I. 머리말

II. 벤처기업의 의의 및 역할

III. 경제구조 조정과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

IV. 미·일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V.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성

VI. 벤처기업육성과 부산경제의 발전 전략

VII.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policy ideas on the promotion of the ventures for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policy authority focuses on fostering new technology based firms to restructure the currently ailing economy which consists of the heavy industry and big companies-oriented. In particular, each regional government also focuses on supporting the venture business in order to vitalise its stagnant regional economy.

In this article, the policy ideas for the promotion of the new ventures are suggested. First, it is thought that the regional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offer the tax and financial incentives for the new ventures which are created in their region. Then the regional universities and the economic institutions should also offer the entrepreneurship programmes to encourage the new ventures cre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network between the regional universities and the related institutes for the exchange of new information on technology and further to build

*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조교수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TBI) and business incubator(BI) in the universities. Thirdly, it is desirable to build the buildings for new ventures in Pusan. The venture buildings can provide the space and facilities for the potential ventures. Finally, it is so important for the citizens of Pusan to understand the entrepreneurs and the ventures. The building of a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 citizen and the business in our region would provide the entrepreneurs with both good business environment and good motivation to start many promising ventures in Pusan.

I. 머리말

지난 연말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소위 국제통화기금(IMF)의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빈사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부산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불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부산의 목재산업이 우리나라 수출경제를 주도하였고 1980년대는 신발산업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산업을 대체하는 산업을 육성할 기회를 놓쳐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지역경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의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실시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운용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그 축을 옮겨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에 있어 가장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실례로 대전의 대덕 과학연구단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인천의 미디어밸리 조성계획, 강원도의 생명공학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고위험과 고수익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198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떨어져 경제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 경제를 앞지르고 있는 데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우리도 벤처기업의 육성에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개인컴퓨터의 보급과 더불어 앞으로의 산업구조가 정보 및 통신 분야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첨단기술 및 지식집약형 산업에 진출하는 벤처기업은 한 나라의 기술기반을 강화하며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술수준의 향상은 종국적으로는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와 기업의 효율적 경영에도 이바지하며 신규고용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그리고 벤처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은 수입대체효과가 크며 수출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소규모 자

금과 소수의 인원으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한 특수 형태로 벤처기업이 육성·발전되면 중소기업의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역할은 최근 미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1996년도 미국 GDP성장의 1/3을 컴퓨터, 통신 등 첨단기술분야가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종전의 GDP성장에 크게 기여한 주택부문과 자동차산업 부문을 능가하고 있다²⁾. 미국경제는 인터넷에 의해 주도되는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첨단산업분야의 성장 덕택에 1990년대에 들어 경기상승세가 6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호황은 지난 수년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80년대 초반에 창업을 하여 10여년의 역사밖에 지니고 있지 않은 벤처기업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보다 시장가치가 더 높거나 비슷하게 평가되고 있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GNP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비중이 2000년에는 15-20%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벤처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개인자산가(angel)와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 초기 부족한 자금난을 극복하며 또한 경영자문을 받으며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하여 성공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이 정신이 강한 젊은이들의 왕성한 창업의욕이 미국 벤처기업의 발전에 있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

그런데 무엇보다도 21C를 눈앞에 둔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고 있다. 한 나라의 산업구조도 종전의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이제는 첨단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의 변동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산업구조가 급변하게 된 것은 기술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또한 소비자의 개성이 다양해지면서 종전의 대량생산체제 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이행되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 전환시점에서 우리도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벤처기업의 의의와 역할, 미·일의 벤처기업육성 정책,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 그리고 부산경제발전의 전략적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육성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 1) 고용창출효과를 보면 1988-92년 사이 미국에 있어 500대 기업의 경우 0.8%의 고용감소를 가져왔으나 벤처기업은 19%의 고용증가를 시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94년의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225개 대기업의 고용은 3.0% 감소한 반면 133개 벤처기업은 2.2%의 증가를 시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중소기업청, 1997).
- 2) 지난 3년 동안 첨단기술분야는 미국 GDP 성장의 27%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동기간 중 주택부문과 자동차분야는 각각 14%와 4%밖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usiness Week, 31 March 1997, 48-54).
- 3) 미국에서는 한해에 175만개의 기업이 창업되고 80만개가 폐업을 하며 400-500개의 기업이 증시에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16,214개의 기업이 생기고 13,000개의 기업이 폐업을 하였다(이광형, 1997).

II. 벤처기업의 의의 및 역할

1. 벤처기업의 의의

벤처기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지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장의욕이 강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심이 강한 기업가(entrepreneur)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으로서 상품의 독창성과 사업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⁴⁾. 여기서 높은 위험수준(고위험)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high-tech)의 개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데 따르는 실패가능성이 일반기업에 비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의 기술적 성공여부와 이를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성공여부에 수반되는 실패의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수익이 내포하는 의미는 성공하는 경우 기업가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음을 뜻한다⁵⁾.

벤처기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의 수행주체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대기업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내부적 벤처(internal venture)와 또 하나는 창업인에 의해 독립된 기업의 형태로 나타나는 독립적 벤처(independent venture)이다. 일반적으로 모험사업의 평가, 관리, 개발과정 등에 관한 이론들이 양자의 구별이 없이 사업단위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으나, 수행주체에 따라 성패요인, 관리방법 등에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기업단위의 대상에서는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중 창업인에 의해 독립적 벤처를 수행하는 기업을 벤처비즈니스(Venture Business)라 하며 미국에서는 이외에도 HTSF(High Technology Small Firm), NTBF(New Technology Based Firm)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징을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바⁶⁾, 첫째, 창업자들이 젊고, 배태조직에서의 기술개발경험과 경영관리경력을 거치고 있고, 둘째, 기술혁신에 있어 배태조직으로부터 파생되거나, 기술이전된 경우가 많으며, 셋째, 지식집약산업이 인접한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넷째,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높고, 인력자원의 기술 및 기능집약도가 높으며, 다섯째, 인력관리에 역점을 두며 마케팅, 재무, 생산 등 여러 경영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외부기관을 이용하고, 여섯째, 주로

4) 벤처기업을 모험기업, 신기술기업, 기술집약적기업, 지식집약적기업, 연구개발형기업, 하이테크기업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0월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을 첫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인수 총액이 10% 이상인 기업, 둘째,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총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 이상인 기업, 셋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넷째,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정보화촉진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기타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중 벤처기업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5) MS사의 빌 게이츠나, 유리시스템을 창업하여 미국의 500대 부호의 명단에 오른 재미 교포 김종훈씨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6) 본 8가지의 특성은 이진주(1986)에서 정리하고 있음.

고성장 산업분야에 진출하고, 일곱째, 경영성과면에서 높은 매출성장률, 부가가치율, 수출비율 등을 보이며, 여덟째,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첫째, 신기술(첨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둘째, 창업을 통해 개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한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벤처기업이란 “개인 혹은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역시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되는 신기술의 개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각국에서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이행되면서 종전의 노동과 자본 대신 기술과 지식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우수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영노-하우를 핵심자원으로 한 벤처기업이 첨단기술산업의 영역을 무한히 확대하면서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벤처형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의 태도는 위험을 회피하려하고 경영에 있어 경직적인 사고를 가지거나 후발주자적인 태도를 취하며 기존의 사업영역에 머물며 안주하려는 종전의 기업가상과는 상이한 것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지닌 기업가들이 생명공학, 컴퓨터, 정보통신 관련 첨단 산업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각국의 경제에 있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벤처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일반적으로 벤처기업들(기술집약형)은 특정 산업분야의 태동기에서 제품혁신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개량형이나 모방형의 기술혁신보다 획기적인 기술혁신이나 주요기술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진출분야를 보더라도 주로 컴퓨터산업분야, 전자 및 통신분야, 생명공학 및 의료산업분야 등 첨단기술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정보화 사회의 기반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성장률이나 고용성장률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반기업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수익성이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벤처기업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벤처기업의 육성은 국민경제 발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술기반의 강화 및 기술수준의 향상

세계의 산업구조는 원자재가격의 상승, 소비패턴의 변화,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자정보, 신소재,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부문이 크게 발전함과 아울러 종전의 양 중심의 생산체제에서 질 중심으로 바뀌고 거대화에서 소형화, 집중화에서 분산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동력 있는 중소기업이 효과적이며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신기술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아 벤처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국민경제적 효과

벤처기업은 3C(Computer, Communication, Control)와 3S(System engineering, Software engineering, Service engineering) 등 기존의 산업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분야를 주요 진출대상 분야로 함에 따라 신규고용창출의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다.

다. 생산성 향상 효과

기술개발의 결과는 기술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는 다시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재료비, 인건비, 에너지 절약 등의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불량률 감소, 공정 단축, 공정의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이 동시에 나타나며 제품 및 부품의 설계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와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라. 중소기업의 활성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의 한 특수한 유형으로써, 기술과 창업의욕만으로 출발함에 따라 영업기반이 일반 중소기업보다도 훨씬 열위에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들 벤처기업들이 신기술 분야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노력 향상 등을 추구함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기술개발에서 독자적인 연구개발성과를 거두어 기술면에서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 이르게 되고 시장진입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마. 산업구조의 고도화

벤처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기술의 사업화는 대기업의 경우와는 별도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기술영역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대기업이 참여하기에는 부적절한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첨단기술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영역을 확보하게 되고 대기업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견실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Ⅲ. 경제구조 조정과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

1.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제도 이제는 종전처럼 고속성장의 시대는 지나고 성장속도가 완만해지는 성숙 단계에 점차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⁷⁾. 1980년대 전반까지는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말 이후부터는 제조업성장률과 수출증가가

둔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⁸⁾.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둔화와 취업시간의 단축으로 노동투입의 증가율은 낮아지고 또한 투자율 증대의 한계로 자본스톡도 둔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종전에 추구했던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대를 통한 성장정책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투입요소의 단위당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미국 제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자동차 3사(GM, Ford, Chrysler)와 최근 컴퓨터 산업의 발전으로 새롭게 부상한 Intel, Microsoft, Cisco System사의 매출액, 종업원 및 시가총액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첨단기업의 시장가치(market capitalisation)가 자동차 3사의 시장가치에 비해 2.7배나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⁹⁾.

특히 1997년 연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드러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정책당국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려는 각종 정책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즉 이제는 대기업에 의한 중화학공업 위주의 생산체제를 통한 국부 창출보다는 중소·벤처기업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저효율 고비용의 구조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표 1>에서 전망되고 있는 바와 같이 21세기에는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데 특히 정보통신, 금융, 기업서비스, 영상소프트웨어 등에서 높은 실질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이들 업종에서의 벤처기업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근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 중 많은 기업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에 진출하고 있는 바 이들에 의해 산업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7) 박준경·김정호(1995)에 의하면 1980년대 11.8%의 성장률을 시현했던 제조업이 1990년대에는 8.0%, 2000년대에는 6.1%로 둔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 성소미(1995), p.163.

9) 미국의 자동차 3사와 컴퓨터 관련 3사의 매출액, 종업원수, 시장가치 등의 비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대로 매출액과 종업원수면에서는 벤처기업 3사가 자동차 3사에 비해 훨씬 규모가 적다. 그런데 놀랍게도 첨단기업의 주가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시장가치는 자동차 3사보다도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3사와 주요 벤처기업 3사의 경영지표 비교>

	매출액(십억불)	종업원수(천명)	시장가치(십억불)
General Motors	164.1	647	43
Ford	147.0	345	38
Chrysler	61.4	114	22
합계	372.5	1,106	103
Intel	20.8	49	116
Microsoft	8.7	21	120
Cisco	4.1	10	34
합계	33.6	80	270

주: 매출액과 종업원 수는 1996년 기준이며, 시장가치는 1997년 3월 중순 기준임.
 자료: *Economist*, 29 March 1997.

〈표 1〉 산업별 GDP의 구성비 및 성장률 전망

	구성비 (경상가계)					실 질 성 장 륜			
	1980	1990	2000	2010	2020	1980~90	1990~2000	2000~2010	2010~20
1. 농림수산업	14.9	8.7	4.0	3.0	2.5	3.0	0.4	0.5	0.3
2. 광 업	1.6	0.6	0.3	0.2	0.1	-0.8	-1.5	-0.2	-0.4
3. 음식료품	5.5	3.8	2.8	2.0	1.5	6.1	4.8	2.5	1.3
4. 섬유/의류	5.4	3.4	0.8	0.5	0.4	5.1	-3.1	2.8	1.7
5. 목제품	0.3	0.2	0.2	0.1	0.1	5.8	0.9	1.4	0.9
6. 지제품	1.1	1.3	0.9	0.7	0.6	13.0	4.8	3.1	2.7
7. 화학제품	3.5	3.4	2.8	2.4	2.3	12.8	8.4	4.1	3.1
8. 석유/석탄제품	1.5	0.6	2.9	2.5	2.2	7.4	15.2	4.6	3.5
9. 고무제품	0.4	0.3	0.3	0.2	0.2	10.2	7.0	4.7	2.9
10. 비금속광물제품	1.5	1.3	1.2	1.1	1.0	11.7	7.3	5.3	3.5
11. 일차금속제품	1.9	2.6	2.5	2.5	2.5	14.0	7.8	5.5	4.2
12. 조립금속	0.7	1.4	1.0	1.0	0.9	17.2	7.4	6.2	4.0
13. 일반기계	1.1	1.8	1.9	2.1	2.3	18.0	10.3	7.5	5.8
14. 전기/전자제품	2.8	4.2	4.2	4.9	5.3	19.8	10.2	8.2	5.3
15. 수송기기	1.7	3.7	4.5	4.9	5.0	21.4	11.2	7.5	5.3
16. 정밀기기	0.3	0.3	0.2	0.3	0.4	12.2	7.6	7.6	6.9
17. 기타제조업	0.7	0.8	0.5	0.4	0.4	14.8	3.6	5.1	5.0
18. 전기/가스/수도	2.1	2.2	3.1	4.0	4.3	16.0	9.5	6.0	3.2
19. 건설업	8.1	11.6	11.1	9.5	8.7	10.6	5.4	4.8	3.9
20. 도소매/음식/숙박	13.5	12.9	13.3	13.8	14.1	9.8	7.9	5.5	4.1
21. 운송/보관/통신	7.7	6.7	8.0	9.0	9.4	8.8	9.0	6.3	4.3
22. 금융/보험/부동산	10.0	12.2	14.1	14.4	14.4	10.5	8.7	5.5	3.6
23. 기타서비스	8.8	11.8	14.6	15.6	16.6	8.8	7.0	5.9	4.1
24. 공공행정/국방	4.7	4.1	4.6	4.7	4.8	2.3	5.8	5.5	4.0
25. 원유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 조 업	28.6	29.2	26.8	25.8	25.0	12.0	7.6	6.0	4.4
서 비 스	54.9	61.5	68.8	71.0	72.3	9.2	7.5	5.6	3.9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9.1	7.0	5.5	4.4

자료: 박준경(1997), p.77.

2. 수출 구조의 변화

우리나라가 종전에 저임금 저가제품으로 성장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나고 고임금 고가제품으로 국제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점에서 기술집약 내지 지식집약 산업의 육성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중 기술집약형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을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대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21C는 산업사회에서 중요시되었던 노동과 자본보다는 기술과 지식이 우위를 점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첨단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을 창업하는 벤처기업가가 새로운 리

더로서 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새롭게 전개될 사회에서의 벤처기업의 역할은 매우 커지고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1997년 이후 조성된 벤처기업의 붐이 지속되면 벤처기업에 의해 생산된 첨단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우리의 수출구조를 보다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

	수출액 (천불) 1995년 1~7월	수출액 (천불) 1996년 1~7월	수출액 증가율(%)
- 총수출	68,726,702	75,210,918	9.4
· 대기업	41,039,205	44,629,316	8.7
· 중소기업	27,528,448	27,528,448	10.8
- 중소기업 업종별 (노동집약)			
· 플라스틱, 고무	1,913,802	1,920,449	0.3
· 섬유	7,917,704	7,755,654	△2.0
· 생활용품	1,664,926	1,480,156	△11.1
(기술집약)			
· 전기, 전자	7,466,073	8,757,175	17.3
· 기계류, 운반용	2,647,570	4,060,856	53.4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6).

3. 21C 벤처기업의 비중 전망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역할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정책당국은 빈사상태에 이른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책방안의 하나로 벤처기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당국과 관련기관에 의한 각종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이 저변으로 확산되어 많은 유능한 젊은 인재가 이 분야에 동참하게 되면 벤처기업의 수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정책당국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7%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의 증가율은 6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벤처기업이 증가하면, 1997년 현재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2.7%에서 2005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벤처기업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⁰⁾. 21세기에 이르러 벤처기업의 비중이 이처럼 증대하면 명실 상부하게 우리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10) 이장우(1997)는 2006년에 이르러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2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3〉 21C초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비중 전망

(단위: 천개,%)

	1997	2001	2005	증가율(97/01)
- 중소기업체수 :	111	148	202	7.4
- 벤처기업수 :	3	20	40	60.7
- (비중, %) :	2.7	14	20	-

자료: 중소기업청(1997).

IV. 미·일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최근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생물 공학, 지식 집약형 첨단산업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이 국가 전체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한 미래의 산업을 주도할 주요 분야로 인식하여 이들 산업에 대해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생물 공학, 컴퓨터 등과 관련된 벤처기업은 높은 위험이 수반되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워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모아 벤처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벤처캐피탈은 자본의 제공자가 자금을 받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위험자본(risk capital)으로 상당한 투자 성공을 보인 경우도 있는 반면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 것도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마련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미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가. 미국의 벤처기업 현황 및 특성

미국에는 1996년 현재 약 3-4만개의 벤처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1996년 한 해 동안 2,600여개의 벤처기업이 탄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벤처기업의 특성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창업 후 짧은 기간 내에 기업공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벤처기업은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 설립 후 10년 이내에 주식을 공개하고 있는 데 이는 일본의 경우 30년, 한국의 경우 3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사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MS사는 설립 후 5년이 되는 해에 기업을 공개하였고, 인텔은 3년만에 그리고 노벨(Novell)은 2년만에 각각 주식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참가하는 자는 한마음이 되어 벤처기업을 운영하며 그 기업의 주식을 성공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성공에는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초일류 기업가가 많다는 점이다. 벤처기업의 성공여부는 우수한 경영자의 존재와 사업의 잠재성이라는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기업에서 떨어져 나와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우수한 기술과 경

영기법을 지니고 있어 사업의 처음단계부터 성공가능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가는 단계에서 스톡옵션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업가는 스톡옵션을 활용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확보된 우수한 경영진과 기술진을 일체가 되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나아가 사업화를 향한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벤처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각종 사회적 지원체제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대학, 과학단지(science park)의 지원체제를 통해 기술지원과 연구공간(인큐베이터)을 제공받아 아이디어를 시작품단계, 실용단계 그리고 상품개발로 진척시킬 수 있다. 넷째, 상품화의 목표에 도달한 시점에서 기업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사업영역, 사업특성, 장래성, 마케팅 전략, 자금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 사업계획서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게 된다. 다섯째,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원이 존재하는 바 기업가는 사업계획서를 개인자산가(angel), 공공벤처캐피탈(SBIC), 민간벤처캐피탈리스트 등에게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가 실현성이 있는 매력적인 투자안이면 앞의 각 투자가는 성장단계에 따라 투자를 하는 데 대개 개인자산가, SBIC, 민간벤처캐피탈 순으로 자금이 제공되고 있다. 여섯째, 벤처캐피탈회사는 투자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족하게 되는 마케팅, 회계, 경영관리 분야의 인재를 임원파견의 형식을 통해 도와주고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일곱째, 투자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증권사, 회계법인 등과 의논하여 기업을 NASDAQ증시에서 주식을 공개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자, 종업원, 개인자산가, 벤처캐피탈리스트는 이윤을 얻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여덟째, 성공적인 주식공개를 한 벤처기업의 본격적인 성장은 NASDAQ시장에서의 공개 이후에 이루어진다.

나. 미국 벤처기업의 활성화 배경

1) 증권시장의 발달

미국은 벤처기업의 성공시 쉽게 그 투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NASDAQ시장이 발달 하여 첨단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지되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자금회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AMEX를 흡수하여 이제는 명실 상부한 세계 제 2의 증권시장으로 부상하여 뉴욕증권거래소와 경쟁하고 있다.

2) 다양한 벤처캐피탈의 존재와 다수의 엔젤 존재

미국에는 다수의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존재(96년 600개사 정도)하여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경영자문 활동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발전을 돕고 있다. 또한 미국에는 개인자산가인 엔젤이 100만명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데 이는 벤처캐피탈회사에 의한 투자금액의 5-7배에 이르고, 투자건수는 5만건으로 벤처캐피탈회사의 20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산업구조 변화의 경험

미국은 자동차, 전기, 철강,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의 성숙으로 인하여 일찍이 산업구조의 변혁

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벤처기업 시대로의 전환이 여타 나라에 비해 빨리 이루어졌다.

4) 군수산업에서 민간산업부문의로의 인재의 이동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시대가 종식되어 군수산업의 종사자들이 대거 민간기업으로 혹은 독립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한 것이 벤처기업의 육성에 기여하였다.

다. 미국의 벤처기업육성 지원정책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은 1950년대 초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정책은 민간부문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민간차원의 중소기업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미국의 벤처 및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1) 중소기업청에 의한 지원정책

미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53년에 중소기업청(SBA)을 설립하였는데 본청은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조성과 창업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기본정책방향을 고용창출에 두고 있는 바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으로 되면 그만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의 주요 업무로는 자금지원, 경영관리지원, 출판사업 등 3가지이다. 자금지원은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프로그램,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그리고 채무보증 및 소액융자 등이다. 경영관리지원은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re)가 있으며 전자는 퇴직한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경영상의 자문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13,000여명의 경영자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후자는 기업을 설립할 사람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본 훈련과정에서는 경리, 마케팅, 경영관리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차원의 지원과 각 주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효과 있는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SBIR 프로그램(중소기업혁신연구시책)

SBIR프로그램은 첨단기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에 신설되어,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지출이 있는 정부기관이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바 현재 NASA(항공우주국)를 비롯해 11개의 연방정부기관이 자금출원대상으로 되어 있다. 1991년까지는 각기관의 연간연구개발예산의 1.25%를 중소기업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1992년에는 1.5%로 증대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2.5%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1993년에 6.5억 달러인 SBIR프로그램의 예산이 1996년에는 1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3) SBIC프로그램

SBIC(중소기업투자회사)는 1958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투자법에 의해 중기청(SBA)의 허가를

받은 벤처캐피탈 회사이다.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연방정부(중기청: SBA)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장기유자 자금의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SBIC는 정부보증채권 등의 발행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짙은 벤처캐피탈회사이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벤처캐피탈지원은 민간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하기를 기피하는 소규모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다른 민간금융기관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Glass-Steagall법(은행법)에 의해 주식투자에 대해 규제를 받으므로 은행자회사가 SBIC로서 인가를 받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은행계의 SBIC도 상당수 있다. 용자전문의 SBIC는 순자산이 최소 500만 달러에 달해야 하며 투자전문의 경우는 최저 1,000만 달러는 되어야 한다. SBIC가 우선 지원하고 있는 투자분야는 (1) 각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2) 매상고 600만 달러 이하, 세후순이익 200만 달러 이하, 순자산 1,800만 달러 이하의 기업 (3)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기업 (4) 투자기업의 주식을 50%이상 소유를 금하고 있다. SBIC는 2년에 한 번 투자기업의 재무상태와 투자상황을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SBIC는 중소기업 가운데 특이한 기술, 상품, 특허를 가진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3,0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미국에서 신설되는 기업수인 60만 사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위험자본의 지원으로 민간자금의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기청은 1971년 이후 특별중소기업투자회사(SSBIC)의 설립을 인가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라. NASDAQ 증권시장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미국 NASDAQ시장은 1971년 NASD가 장외시장 증권의 호가를 자동전달시스템인 NASDAQ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늘날의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82년에는 거래소시장과 연결된 전국시장제도(NASDAQ/NMS)를 개설하여 시장간 주문이 가능하여졌다. 미국의 장외시장의 대표인 NASDAQ시장은 주로 첨단기술 및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주식, 그리고 소비 및 생활과 관련한 뉴비즈니스 기업의 주식 등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시장으로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등에 비해 상장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상장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NASDAQ시장의 이미지가 컴퓨터, 통신, 생명공학 관련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으로 점차 위치를 잡아가면서 첨단기업을 위한 시장으로의 정체성을 확보해 이제는 거래소 시장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

최근 미국의 NASDAQ시장에 대한 발전상을 1995년 미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 기업의 경영성과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4>는 최근 5년간의 미국 NASDAQ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성과를 최근 5년간의 주가 상승률, 매출액 성장률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나타내고 있는 바, NASDAQ시장의 기업이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11) NASDAQ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70%가 컴퓨터, 통신, 생명공학 등 연구개발 및 지식집약형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12) 미국의 Forbes誌는 1996년 1월에 제45차 미국산업 연간보고서를 발표하였는 바, 이 자료에는

〈표 4〉 미국 NASDAQ의 상장기업 성과 분석

	업종	주가상승률 (%)	자기자본 이익률(%)	매출액 성장률(%)	주당순이익 (%)	부채/ 자기자본	순이익 (백만\$)
1. Intel	컴퓨터	572.7(51)	27.8	29.8	40.4	3.4	3,071
2. Microsoft	컴퓨터	462.1(70)	35.9	37.5	33.9	0.0	1,636
3. Novell	컴퓨터	112.1(418)	20.1	35.4	25.5	0.0	300
4. Cisco	컴퓨터	2,747.6(1)	56.2	83.3	75.5	0.0	421
5. Oracle	컴퓨터	1,685.7(5)	37.3	26.1	91.8	5.6	434
6. MCI Comm	통신	156.0(3080)	19.4	13.3	9.3	23.9	415
7. Applied Materials	컴퓨터	1,602.0(6)	20.7	26.0	29.1	12.6	362
8. Sun Micro	컴퓨터	298.2(143)	15.3	17.6	17.3	3.5	402
9. Apple	컴퓨터	-4.7(1000)	15.8	14.3	NM	7.8	424
10. Sybase	컴퓨터	261.4(165)	25.8	63.6	92.2	0.2	300
11. 3 Com	컴퓨터	2,231.3(4)	13.3	26.6	NM	16.8	156
12. DSC Comm	컴퓨터	1005.3(23)	13.8	16.7	NM	17.5	197
13. Cirrus	컴퓨터	212.2(220)	19.2	60.2	10.9	7.4	89
14. USHealthcare	건강	365.4(109)	55.4	24.8	64.3	2.1	687
15. Amgen	건강	367.5(108)	34.5	57.2	73.7	10.1	397
16. VLSI	컴퓨터	363.9(111)	3.5	15.3	NM	22.7	37
17. Dell	컴퓨터	593.2(47)	21.2	61.4	71.6	12.4	262
18. WorldCom	컴퓨터	688.6(37)	6.4	36.1	NM	62.5	118
19. Adobe	컴퓨터	335.2(119)	15.1	21.2	-27.5	0.0	50
20. Quantum	컴퓨터	55.0(678)	17.1	45.7	8.2	36.2	13
21. Comcast	오락	105.7(440)	적자	21.5	NM	89.3	-61
22. Read-Rite	컴퓨터	101.7(463)	26.5	63	23.0	18.7	124
23. Acclaim Ent.	컴퓨터	501.9(61)	28.0	39.4	44.0	6.4	55
24. Price/Costco	소매업	0.3(973)	7.6	13.0	-4.2	34.7	134
25. Lam Research	컴퓨터	1,546.2(9)	27.7	45.0	77.3	18.4	105

주: 1. 조사대상기업의 선정은 1995년도에 거래가 가장 활발한 기업중 상위 50개 기업에서 Forbes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업을 기준으로 하였음.

2. 주가변동은 최근 5년간의 변화이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성장률, 주당순이익, 성장률 등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치임.

3. 주가상승률란의 ()안의 수치는 Forbes지의 조사대상 기업중에서의 주가상승률 순위임.

4. NM : not meaningful

자료: Forbes, January 1, 1996. 및 NASD, Nasdaq Stock Market: 1996 Fact Book, 1996.

1,309개 미국기업을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자본이익률(return on capital), 매출액, 이익 및 증시에서의 성과(stock market performance) 등에 대한 통계치를 중심으로 각 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조사하고 있다(Forbes, 1996.1.1, pp.76-237).

특히 NASDAQ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하나인 Cisco Systems사의 1995년말 주가는 1991년초에 비해 무려 2,478%나 상승하여 1,309개의 조사대상 기업 중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3 Com사가 4위, Oracle사가 5위, Applied Materials사가 6위, 그리고 Lam Research사가 9위를 시현해 주가상승 10위 안에 NASDAQ시장의 기업이 5개사가 포함되어 있어 장외거래기업의 주가상승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에 요약된 바와 같이 조사된 25개 기업의 경우 지난 5년간에 있어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주당순이익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는 부채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채대 자기자본비율이 0.0%인 기업이 4개나 되며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의 경우도 89%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 일본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최근 일본경제는 유래 없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경제전반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벤처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책당국은 벤처기업이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뉴비즈니스의 창출, 새로운 고용창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실시하고 있다.

가. 일본 벤처기업의 특성

최근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의 육성을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근의 벤처기업의 붐은 1970년대 초와 1980년대에 이어 세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성숙화로 경제의 구조적 정체, 초 엔고의 지속으로 산업의 공동화 등으로 일본 경제가 침체상태로 빠져들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각종 경제단체나 중앙정부의 관련정책당국 그리고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단체가 벤처비즈니스의 육성을 강조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미국의 산업이 첨단기술 및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창업이 활기를 띠면서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데서 자극을 받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벤처캐피탈협회에 가입한 기업은 1988-92년 사이 매년 19%의 비율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500대 기업의 조사에서는 0.8%로 줄어들고 있는 사실에서도 벤처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日經平均株價指數에 채택되고 있는 225개사의 고용자수는 94년 9월 결산에서 76,000명(3.0%)이 줄어들고 있으나 주요 장외등록 기업 133개사의 고용자수는 2,800명(2.2%)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의료기기, 금융 등과 관련된 기업이 많이 창업되고 있으나 생명공학과 하이테크 관련 기업은 아직 크게 많은 편은 아니다.

일본에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즉 벤처기업은 성장의욕이 강한 경영자에 의해 영위되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기업으로서 상품의 독창성, 사업의 독립성, 사회성, 그리고 국제성을 지닌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¹³⁾. 여기서는 최근 일본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 논문

을 중심으로 일본벤처기업의 특성을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¹⁴⁾.

일본의 벤처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슈퍼바이오, 슈퍼하이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기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뉴비즈니스와 뉴서비스의 분야에서는 대형 벤처기업이 다소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크게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경영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둘째, 기업성장속도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더욱더 규제완화와 인재유동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대의 기업가는 아직 일본에서는 흔하지 않으나 앞으로 젊은 기업가를 많이 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며 공적인 측면에서는 유인제도를 부여하는 시책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나. 일본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최근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폐업률이 창업률을 상회하여 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한 벤처기업을 폐업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신설기업의 비율이 높은 산업과 미국의 신규고용 급증 업종을 보면 양국 모두에 경제활성화를 담당하는 성장산업은 중소기업형의 벤처기업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신규가입이 비교적 용이한 것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일본 모두 기업의 종업원 수 감소와 기업도산에 따른 고용감소를 중소기업의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에 의해 흡수되도록 유도하였다. 신규개업이 가져오는 국내수요를 시산하면 일본에서는 연간 약 1조 4,000억엔(GDP의 0.3%), 미국에서는 연간 약 450억 달러(GDP의 0.7%)에 달하고 있다¹⁵⁾. 또한 일본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서 1995년부터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이 시행되고 있는 데 본 법은 금융, 세제, 인재 등 다방면에서 벤처 및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그 역할과 기대가 크다. 그리고 일본개발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에서도 융자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무담보융자제도나 벤처자금의 신설, 민간금융기관에서는 소프트담보융자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일본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중요정책으로는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에 의한 각종 지원, 공공금융기관에 의한 융자제도, 신규사업법에 의한 지원내용의 개선, 그리고 벤처기업센타에 의한 채무보증액의 인상 등이 있다.

가)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중소기업창조활동법은 중소기업창업 및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의 촉진을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척을 꾀하며 더 나아가 국가산업구조 전환의 원활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13) 早稻田大學의 松田修一教授가 내리고 있는 정의임 (長田和久, 1996, P.49).

14) 長田 和久 (1996).

15) 後藤守男 (1995.9), p.4.

10년간의 시한 입법으로서 1995년 4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른 지원은 창업지원과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구하는 중소기업가에 대해 2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창업지원에서는 사업개시 5년 미만의 제조업, 인쇄업, S/W업 또는 정보처리서비스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가에 대한 두 번째 지원방법에는 우선 연구비의 수입금액에 대한 비율이 3%를 넘어서는 중소기업가에 대해 창업지원과 동시에 중소기업투자육성회사법의 특례와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 경감을 승인했다. 여기에 또 뚜렷한 新規性を 지닌 기술, 노하우의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가(아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한 개인도 포함)에 의해 결정된 연구개발 등 사업화 계획이 都, 道, 縣 지사에게 적절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 공공금융기관의 융자제도의 신설

1994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금융기관(국민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공고) 뿐만 아니라 일본개발은행 등에서도 신규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제도의 신설이 잇따르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들 조치중 중요한 융자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금융공고에 의한 신사업육성대부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신사업육성심사회의에서 기술적 수준이 높거나 제품서비스에 있어 특징을 지니며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인정받는 신규사업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부족해서 자금조달에 애로를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일부 무담보로 대부를 가능하게 하는 융자제도이다. 둘째, 일본개발은행, 북해도동북개발공고,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 등에 의한 新分野展開支援融資制度로 이는 경기저하의 장기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의 축소 등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어 있거나 고용과 하청관련기업에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개발과 신분야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제도이다. 셋째, 일본개발은행, 북해도동북개발공고,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에 의한 규제완화분야 투자촉진융자제도로 이는 신규사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불러 일으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규제완화와 더불어 새롭게 창출된 분야에서의 투자와 기존의 사업분야에서는 존재하지만 규제완화에 의해 새롭게 진입이 가능하게 된 분야에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제도이다. 넷째, 신규사업지원융자제도로 이는 일본개발은행이 신상품의 개발과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기술중심의 기업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인건비와 공업소유권 취득비 등 비설비자금을 포함한 연구개발비용에서 제품의 양산화 비용까지 폭넓게 융자하는 제도이다. 또 새로운 제도로서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담보로 한 융자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다섯째, 신규사업 진흥대부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상공조합중앙공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원제도이다. 신사업심사위원회에서 보다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자가 지닌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신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 신규사업법의 운용 개선

신규사업법은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산성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특정신규사업에 대한 채무보증제도와 출자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한 요구 등의 제약으로 거의 이용이 없었기 때문에 1994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그

운용방안이 개선되었다. 첫째, 산업기반정비기금에 따른 채무보증에 관계되는 재보증의 탄력화를 피하고 있다. 둘째, 신규사업투자(주)의 출자대상기업의 확대와 출자비용을 인상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즉 종전에는 출자대상기업으로는 신설 또는 설립 3년 이내에서 출자금 10억엔 이하의 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당해 신규사업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기술의 특허출원 후 3년 이내의 기업도 출자대상에 포함시켰다.

라) 벤처엔터프라이즈센터(VEC)의 채무보증 인상

VEC에서는 1995년 10월부터 채무보증액의 상한을 인상하여 즉, 종전의 채무보증액의 상한은 연구개발형 기업 채무보증제도가 8천만엔, 지식융합형 채무보증제도가 4천만 엔이던 것을 각각 1억 엔과 5천만 엔으로 인상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원정책

최근 일본에 있어서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의지는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까지도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형 중소기업을 유치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은 담보와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저리융자제도인바 몇 가지 특징적인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차세대 기업가의 육성지원사업

오카야마현(岡山縣)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사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까지의 단계에 걸쳐 일관되게 지원하는 "영재네레이션 육성지원사업"을 1995년도에 창설했다. 이 경우 오카야마현내에서 연구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설립부터 5년간은 현내에 본사를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연간 최고 1,200만 엔을 2년간 보조금으로서 지급하는 것 외에 현내의 연구시설과 기기를 무료로 빌려준다. 회사설립 때는 최고 1천만 엔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율 1.5%의 저리융자를 해주며 또한 현위촉의 변호사와 중소기업진단사 등이 경영, 판매, 법률면에서 자문해 주고 사업계획지도와 민간임대와 공장의 알선도 도와주고 있다.

나) 민간벤처자본 투자자금제공과 무담보융자제도

후쿠이현(福井縣)에서는 기술개발을 계약하거나 그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등 기술혁신과 고도정보화, 새로운 사업전개를 모색하는 창조적 기업활동을 금융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1995년에 신설했다. 투자육성사업은 민간벤처캐피탈에 대해 연간 2억 엔의 투자자금을 제공하며 또한 벤처캐피탈의 투자손실을 보증해 주고 있다.

다) 기업가 지원의 재단설립

熊本縣에서는 新株를 인수함으로써 기업가를 지원하는 재단법인을 1995년에 설립했다. 즉 창업초기의 벤처기업과 신분야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1천만엔 정도의 투자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대상 기업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무, 영업, 마케팅 등 경영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한 대표적인 예로는 1990년에 설립한 "오오사카부(大阪府) 연구개발형기업진흥재단(FORECS)"이 있으나 아직 매우 드

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熊本縣 이외에는 兵庫縣이 재해부흥기금을 활용한 "재해부흥 벤처캐피탈"을 설립한 외에 宮成縣과 高知縣 등에서도 縣阪벤처캐피탈을 설치하려 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3)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정책

거품경제 붕괴후 대규모의 불량채권을 떠맡게 된 민간금융기관은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가 높아져 담보력이 없는 벤처기업에의 대출에는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자금수요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중은행(都銀)과 장기신용은행의 일부에서는 자금수요가 왕성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이들 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벤처기업의 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三和銀行에 의한 종합적인 벤처기업육성제도, 都銀과 長信銀에 의한 소프트담보융자제도, 安田信託銀行에 의한 벤처기업의 외상출채권의 證券化, 生保 및 損保의 벤처기업 투자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다. JASDAQ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일본의 장외시장(JASDAQ)은 미국의 장외시장(NASDAQ)만큼 성장하지 못했으나 1988년 이후 형성된 기업공개 붐에 힘입어 등록회사수가 급증하는 등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동경증권거래소의 2부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등록회사수를 보면 1983년에 137개이던 것이 1995년에는 698개 회사에 이르고 있어 15년 사이 5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JASDAQ 등록기업의 시가총액은 1995년말 현재 14.5조 엔으로 東證의 4.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거래대금은 다소 높은 7.5% 수준을 시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JASDAQ의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 낮은 것은 JASDAQ 등록기업의 규모가 거래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매우 작은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 증권정책당국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2 場外市場을 1995년 7월에 창설하였다. 제 1장외시장에 비해 登録要件이 많이 완화되었는 바 특히 설립 경과 년수, 이익, 자본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특칙등록(제2장외시장) 대상기업은 주된 사업의 내용에 신규성과 장래성이 있으며 매출액 대비 R & D 비율이 3% 이상인 연구개발형 내지 지식집약형 벤처회사로 하고 있다¹⁶⁾. 이러한 기업의 경우 적자라도 상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상장기준의 정량적 요건이 대폭 완화된 한편 기업경영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어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강구하고 있다. 사실 현재 기업의 경영상황이 적자라도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 당해 기업에 투자할 마음을 갖도록 기업이 신규투자, 기술개발, 서비스개선 현황 및 새로운 인사제도 등에 관해 종종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내용의 공시요건을 강화하여 투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려 하였다. 또한 공모가격의 결정은 지금의 경쟁입찰 방식

16) 여기서의 연구개발비용은 첫째, 신제품(사업을 전환하는 데 핵심이 되고 또한 독자적인 것)의 개발 또는 신기술(사업구상 등)의 발명과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지출된 비용, 둘째, 신제품 또는 신기술 등을 기업화할 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당해 기업화를 위해 지출된 비용, 셋째, 직전사업년도 이전에 있어서 첫째 또는 둘째의 성질을 갖는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직전사업년도의 상각비를 포함한다.

대신에 공개전 증권회사가 미리 투자자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가격 수준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book building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V.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성

1.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

가. 벤처기업의 비중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을 비중을 <표 5>에서 보면 1996년 현재 벤처기업의 수는 1,700여개로 추산되고 있는 바,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개략적으로 보면, 업체수 기준으로는 약 1.8%,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6.1%,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중소기업의 3.2배이며, 평균 종업원수는 중소기업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벤처기업의 규모와 성장속도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벤처기업/중소기업/대기업의 비교

	벤처기업 (1996년)	중소기업 (1996년)	대기업 (1996년)
업체수	1,700 개	96,241 개	903개
매출액	11,357,700백만원	185,872,931백만원	214,026,961백만원
평균매출액	6,176백만원	1,931백만원	237,017백만원
종업원수	77,860인	2,006,078인	891,594인

자료: 벤처기업협회(1998).

나.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실태¹⁷⁾

1) 일반 개황

최근 처음으로 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설문에 응한 203개사를 분석한 내용이 <표 6>에 요약되어 있는 바, 우선 조사대상 벤처기업의 설립년도별 분포를 보면 1986년 이전이 22.7%, 1987-91년 사이가 37.9%, 1992년 이후가 39.4%로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벤처기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종업원 규모를 보면 100-299인이 3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대

17) 양현봉외(1997.5)는 창투회사 출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출자회사, 벤처기업협회 회원사 등 총 506개사를 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중 203개사로부터 설문서를 받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부분의 벤처기업이 100인 이하의 종업원으로 영위되고 있다. 매출액 규모도 500억원 이상은 8.1%에 지나지 않으며 100-500억원 사이가 35.5% 그리고 나머지는 1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로 진출하고 있는 분야는 전기전자와 기계가 각각 25.1%와 22.2%를 시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가 18.2%를 보이고 있다.

〈표 6〉 벤처기업의 일반 현황 (203개 업체)

구 분	비 율 (%)	
설 립 년 도	1986년 이전	22.7
	1987~91년	37.9
	1992년 이후	39.4
종 업 원 규 모	1~19인	16.3
	20~49인	27.6
	50~99인	19.2
	100~299인	30.0
	300인 이상	6.9
매 출 액 규 모	10억원 미만	18.8
	10억원~100억원 미만	18.3
	30억원~100억원 미만	19.3
	100억원~500억원 미만	35.5
	500억원 이상	8.1
주 사 업 분 야	컴퓨터	8.4
	전기전자	25.1
	기 계	22.2
	정밀화학·신소재·환경	9.4
	제조업 기타	6.4
	정보처리 및 S/W	18.2
	기타 기술서비스업	3.9
	건설·통신·유통	6.4

주: 종업원수 및 매출액규모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태조사 대상업체가 상장법인, 장외시장 등록법인,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회사 등이 투자한 업체로 일정 규모를 갖춘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료: 양현봉외(1997).

또한 조사대상 벤처기업의 창업자 특성을 창업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30대가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이하는 7.9% 그리고 41세 이상은 32.0%를 시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개 창업자들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 직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 기업을 창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창업자들의 창업 이전의 직장을 보면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38.4%, 다음으로는 대기업이 37.4%를 시현하여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대부분이 기업에서 배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연구기관 및 대학에 근무한 경험자의 비율은 18.4%에 그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경쟁우위요인과 애로요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는 요인으로는 품질과 성능(59.1%), 신제품개발(21.1%), 가격(15.8%) 등의

순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업력에 따른 사업상의 애로요인을 <표 7>에서 보면 창업준비기에는 자금조달과 행정절차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창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금조달, 인력확보,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7> 벤처기업의 업력별 애로요인

(단위 : %)

구 분	행정절차	자금조달	기술개발	인력확보	판로개척	합 계
창업준비기	28.6	38.9	9.4	13.8	9.3	100.0
창업후 1년 미만	3.5	36.8	16.9	22.9	19.9	100.0
창업후 1-3년	2.7	30.8	21.6	17.8	27.1	100.0
창업후 3-5년	3.4	27.6	23.4	26.2	19.4	100.0
창업후 5년이상	3.5	36.8	16.9	22.9	19.9	100.0

자료: 양현봉 외 (1997).

2)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금조달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우선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원천별로 보면 자기자본 45%, 금융기관 차입 32%, 벤처캐피탈 회사의 투융자금 13% 그리고 기타 차입 10%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벤처캐피탈 회사(창투자 및 신기술 금융회사)의 이용도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70.4%가 벤처캐피탈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종업원 규모가 50인 이상의 기업은 70%가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20인 미만은 33.3%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앞으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회사의 지분율을 보면 대개 30% 미만으로 출자하고 있으나 벤처캐피탈의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도 25%에 이르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중 엔젤캐피탈을 이용한 기업도 16.7%로 나타나고 있는 데 대부분 친지나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거나 (53%) 벤처캐피탈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38%).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회수시 증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규모가 적은 벤처기업의 경우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종업원 100명 이상 혹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규모가 비교적 큰 벤처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증시에 상장되거나 KOSDAQ시장에 등록되어 있어 직접금융시장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런데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경험이 없는 벤처기업 중 81.5%는 앞으로 KOSDAQ시장에 등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나머지 18.5%는 등록 의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고려하여 정책당국은 앞으로 이들 벤처기업이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그리고 기업 퇴출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벤처기업의 인력 수급 현황

앞에서 벤처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인력확보 문제인 바 벤처기업은 병역특례 전문인력요원제도와 스톡옵션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 인력확보는 벤처기업들의 42.9%가 연구개발시 연구 및 기술인력의 부족과 확보난을 지적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력난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최근 벤처기업의 61.6%가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거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벤처기업의 기술 현황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조사 대상 벤처기업의 기술원천을 보면 기존 기술의 개량과 개선이 4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창조적 기술이 33.5%로 높으며, 그리고 외국기술의 모방은 15.8%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창조적 기술보다는 기존 시장에서의 제품 다양화를 겨냥한 기술의 개량과 개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창조적 기술의 비율이 높은 반면 300인 이상의 기업은 외국기술 모방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창조적 기술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는 컴퓨터(52.9%), 신소재·환경·정밀화학(57.9%),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48.6%)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 참조).

〈표 8〉 벤처기업의 기술 원천

(단위: %)

구 분	창조적 기술	기존 기술의 개량·개선	외국기술의 모방	기 타	합 계
전 체	33.5	49.8	15.7	1.0	100.0
1-19인	51.5	30.3	18.2	0.0	100.0
20-49인	33.9	50.0	12.5	3.6	100.0
50-99인	30.8	56.4	12.8	0.0	100.0
100-299인	27.9	59.0	13.1	0.0	100.0
300인 이상	21.4	35.7	42.9	0.0	100.0

자료: 양현봉 외 (1997).

5) 경영성과

조사 대상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매출액 증가율,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등의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995년 대비 1996년도의 매출액 증가율이 27%를 시현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과는 상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업원규모가 적은 벤처기업일수록 매출액증가율이 크며 또한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자기자본 경상이익률을 보면 20% 이상을 시현한 기업이

42.8%, 10-20% 미만을 시현한 기업이 26.3%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분석에서 벤처기업의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를 보면 기술개발 또는 특허권 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확실한 수요처 확보를 들고 있다. 그 외 틈새시장의 진출과 안정적인 기술인력 확보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그림 1)참조).



(그림 1)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주요 요소

2.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특성

가. 벤처기업의 한국적 개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방안을 마련·실시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국제경제환경의 제약요건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초부터 첨단기술개발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의 설립 등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벤처기업은 자생적으로 생성된 풍부한 모험자본(Venture Capital)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고용창출 등 경제적 측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새로운 세기인 21세기는 이전의 사회 경제구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벤처기업의 육성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형태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즉 정보통신 등 새로운 산업 분야가 21세기에는 더욱 유망한 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적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벤처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미국에서처럼 벤처기업의 사업영역을 첨단산업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나라

의 경우 벤처기업의 영역이 너무 좁게 된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이 지원한 사업들을 제품수명주기상의 단계별로 ① 국내시장의 경우와 ② 외국시장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보면,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초기(도입기나 성장기)에 속하는 제품이 대부분이나(86%), 외국시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초기단계의 비중이 훨씬 낮아지고(42%)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제품의 개발보다 외국에서 이미 개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수입대체형 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창업인만이 창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경영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관련산업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 창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기업의 개념이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과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어느 정도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의미는 “개인 혹은 소수의 창업인이 비교적 신규성이 높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특성¹⁸⁾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불굴의 도전정신과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는 소품종 대량생산의 체계를 갖는 중화학 공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지배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는 점차 소비자의 개성이 강해지고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갖는 기술 및 지식 집약형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벤처기업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몇 가지 특성을 갖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바, 첫째, 세계 초우량 기업과 국내외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디슨은 도시바나 GE 그리고 SIMENS와 세계의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하며 성장하고 있다. 한글과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핸디는 NEC와 NOVELL과 경쟁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둘째, 기업경영에 있어 세계적인 비전과 경영목표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메디슨은 세계 최고의 의료기기 생산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지원공구는 세계 제일의 절삭 공구 메이커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휴맥스는 디지털 가전의 소니로 성장하는 것을 경영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0%를 이상인 업체가 상당하다. 넷째, 독특한 경영 이념에 입각한 응집력의 창출로 세계 일류 기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또한 국부 창출과 기술 독립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역사는 일천하지만 상장주의 벤처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세계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18) 본 절은 이장우(1997)을 참조하였음.

3. 벤처기업의 육성방안

새로운 국제경제체제인 WTO의 출범으로 기술보호주의의 강화 및 자유무역주의의 확대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수출여건도 점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나아가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는 기존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빠른 속도의 기술혁신, 수요의 다양화 및 세분화 등으로 인해 주로 신생 벤처기업에 의해 응용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벤처산업이 성장해온 배경과 우리나라 경우와의 차이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오랜 기술축적으로 인해 기술적 기반이 튼튼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유리하며 기술창업에 대한 문화환경이 대단히 우호적이다. 또한 자본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생성된 양질의 풍부한 벤처캐피탈이 존재하며, 자본회수의 측면에서 장외시장의 발달과 M&A 등의 활성화로 벤처캐피탈의 자본이득의 획득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모험자본이 수익성을 목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1차적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첨단기술개발의 2차적 목표에 중점을 두고 출발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미국식 벤처캐피탈제도가 우리나라 모험자본의 자생적 발전에는 부적합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모험자본의 육성과 자금조달보다는 기술개발이라는 명제가 더 큰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양국간의 제도에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이 모험자본의 도움만으로 성공하기에 기술적 기반이 너무 취약하고 벤처기업의 모체가 되는 기술창업의 잠재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 벤처기업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자금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 신기술 개발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술창업기반의 확충

벤처기업의 활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이 급속히 발전한 근본 요인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기술창업의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의 활성화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창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기술창업지원센터(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 TBI)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BI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이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한 곳으로 이미 개발된 기술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기업창업 풍토가 생소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 사업운영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술창업지원활동이 정책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형태로 대학, 공공기관, 지방정부, 민간기관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 BI)는 창업자들을 입주시켜 제반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 고용창출 등 공공과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 아이디어 또는 개발중인 기술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기술보육센터(Technology Incubator : TI)를 통해 전문인력의 파견을 통한 기술지도, 공동개발, 각종 기기사용의 편의제공 등의 효과를 가져와 기술개발단계의 지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외에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대학캠퍼스 또는 연구기관내에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기술혁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 : TIC)를 설립하거나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기술창업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신용보완대책의 확대

벤처기업의 성공적 육성은 신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적 효율성과 상업화의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바,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확실성이 높고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가 자생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어렵고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의 경우는 신기술의 아이디어 혹은 개발된 기술 자체와 창업인의 의욕이 전 재산이고 물적 담보능력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금융기관에서는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신기술개발 등 위험성이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기술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고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창업인의 신용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벤처기업육성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즉 신기술을 정확히 평가하여 기술의 담보력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질의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술보증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증에 따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자확대 등을 통한 지원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벤처기업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액 등 중소기업에 비해 필요자금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일반금융기관의 기술투자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위험성을 감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다. 벤처캐피탈의 기능강화를 통한 지원대책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벤처캐피탈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많을 뿐 아니라 전문가를 육성하

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캐피탈의 임직원을 벤처기업에 임원으로 파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양성하는데 큰 저해 요인이 된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에는 이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문적 기술분야 이외에 일반경영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지원인력을 파견하여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감과 동시에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기술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공개시장에서 회수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M&A 등을 통해 투자지분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참여제한이 폐지되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소유도 완화되어 벤처캐피탈리스트가 투자기업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또한 주도적인 위치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벤처캐피탈은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해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창업 및 경영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창업에 관한 지식제공, 회계처리 방법의 지도, 판매활동의 지원 등 관리적·운영적 지원 뿐 아니라, 경쟁기업에 대한 전략계획의 수립, 새로운 사업계획의 개발 등 전략적 분야의 지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벤처산업 분야에서도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어 벤처캐피탈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영지원능력이 될 것인 바, 이러한 관리 및 지원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벤처캐피탈의 생존 및 향후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 코스닥(KOSDAQ)시장의 활성화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거래소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 장외시장의 개설을 추진하여 1987년 4월에 장외시장을 개설하였다. 장외시장은 개설 당시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벤처기업에의 투자자금 회수의 장으로서 그리고 일반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벤처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책당국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설립으로 더욱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어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장외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과 아울러 장외시장제도의 일대 개혁을 추진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의 장외시장 기능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996년 7월에는 중소기업의 주식거래를 전담하는 코스닥(KOSDAQ)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코스닥시장이 유동성이 낮은 등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지만 앞으로 코스닥시장이 미국의 NASDAQ처럼 주로 벤처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어 유통되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지되게 되면, 점차 유동성이 제고되어 벤처기업의 투자자금회수를 원활하게 할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여 매력적인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기술인력의 확보방안

벤처기업의 성공은 신기술개발의 주체인 우수한 기술인력의 확보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의 인력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병역특례 전문 연구요원제도를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지원제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실정에 부합되는 형태로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배정비율의 상향조정 그리고 스톱옵션제의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VI. 벤처기업육성과 부산경제의 발전 전략

1. 부산경제 현황

최근 부산경제에 관한 기사를 보면 연일 최악의 상황에 달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표 9>는 1970년 이후 부산경제의 변화를 주요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지표를 보아도 계속 부산경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산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9> 부산의 주요경제지표의 전국대비 비중추이

(단위 :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2	1993	1994	1995
인구	5.7	7.0	8.3	8.6	8.7	8.9	8.8	8.7	8.7
경제활동인구	-	5.8	6.7	7.4	8.6	8.7	8.7	8.4	8.3
취업자수	-	5.6	6.2	7.2	8.4	8.4	8.3	8.2	8.2
실업률	-	7.6	6.7	6.3	3.3	3.3	4.4	4.2	3.5
(상대적 실업률)	-	185.3	128.8	157.5	137.5	137.5	183.3	175.0	175.0
수출 전국 비중	26.3	24.1	18.2	13.5	12.0	8.7	7.0	6.3	5.2
지역내총생산	-	-	9.4	8.2	7.8	7.0	7.0	6.8	-
제조업체수	8.6	11.1	11.8	11.8	10.3	10.2	10.4	10.2	-
제조업종사자수	15.9	17.7	15.5	15.1	12.2	10.1	9.2	8.4	-
제조업생산액	16.6	13.5	11.1	9.8	7.7	6.1	5.6	5.1	-
제조업부가가치	15.0	11.3	11.1	9.3	7.7	6.9	5.8	5.1	-
어음교환액	12.0	10.4	15.6	13.8	3.0	3.0	3.1	2.9	3.7
예금은행예금	10.4	10.3	8.8	8.8	8.4	8.0	7.8	7.3	7.7
예금은행대출금	8.6	9.1	8.6	8.1	8.4	8.0	7.3	7.5	7.6
해상물동량	28.2	29.5	22.8	22.4	22.4	14.3	13.8	17.4	17.5
컨테이너물동량	-	-	91.4	91.8	95.0	95.3	95.5	93.9	81.2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지표』, 각년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통계연보』 및 『지역내 총생산』, 각년호.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차 그 성숙도를 더해 감에 따라 산업구조가 이전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에서 점차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으로 바뀌었으나 부산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 개편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실패는 <표 10>에 요약된 부산산업의 변천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넓은 공장부지를 필요로 하는 중화학 공업을 활용 가능한 공업용지가 좁은 부산이 유치,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부산은 이러한 변화추세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늘날의 부산경제의 열악한 구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실천에 옮기려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부산의 경제행정을 강화하여 부산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획력을 제고하고 마련된 정책방안이 일관되게 실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10> 우리나라 및 부산경제의 변천과정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세계경제	세계무역의 증가 미국주도경제	석유위기 미국영향력 감소	정보화시대의 본격진입 경제의 세계화	탈냉전 경제시대 세계화 및 지역화
한국경제	경제개발계획의 시작	성장의 가속화	성장지속과 체질개선	경쟁우위 모색
산업구조	수출주도형 경공업 중심	중화학 공업구조로 변화	산업구조고도화 진전	산업구조 및 제조업 고도화
부산권경제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공업화	부산과 주변지역의 산업적 분리	주변공장지역의 성장	주변지역과의 연계미흡
부산권산업	수출주도형 경공업중심	부산인근지역의 중화학 공업화	마산·창원·울산지 역의 성장	주변공업지역의 독자성장화
부산경제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공업화	제조업중심의 경제구조	산업구조의 서비스 화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부산산업	경공업 제품 주도	수출주도형 경공업 중심	수출주도산업의 상대적 약화	주중산업의 퇴조와 대체산업의 부재
부산의 상대적 위상	한국산업화 =부산산업화	부산의 위상약화 시작	전국비중의 지속적 약화	국내외 경쟁력 저하 산업구조조정실패

자료: 임정덕(1997).

2. 부산의 산업구조

<표 11>은 1965년 이후 부산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용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 부가가치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보면 1975년까지는 제조업의 비중이 증대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점차 감소하여 30%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 제조업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어 20%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아져 70%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또한 부산의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는 고용기준으로 볼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제조업의 종사자가 30%를 훨씬 상회하였으나 1990년 중반 이후는 3차 산업에의 종사 비중이 높아져 70%를 웃돌고 있어 부산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부산의 산업구조

구분 연도	고 용						부가가치					
	전 국			부 산			전 국			부 산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965	58.0	10.3	31.0	5.1	7.6	87.3	42.9	13.1	44.0	4.7	40.5	54.8
1970	50.4	14.3	35.2	3.7	37.3	59.0	28.7	16.3	54.9	3.5	41.6	54.9
1975	45.9	19.1	35.0	3.5	27.5	69.0	24.2	23.5	52.3	2.4	45.6	52.0
1980	34.0	22.6	43.4	4.8	40.4	54.8	15.1	22.0	52.9	3.0	35.5	61.5
1985	24.9	24.5	50.6	4.0	38.4	57.6	12.8	31.3	55.9	2.8	31.5	65.6
1990	18.3	27.3	54.4	3.0	39.0	59.0	10.2	28.9	62.1	3.1	31.7	65.2
1993	14.7	24.4	60.9	2.1	30.8	67.1	7.1	27.5	65.4	3.0	24.5	72.5
1994	13.6	23.9	62.5	2.2	28.5	69.2	7.0	27.2	65.8	2.5	22.9	74.6
1995	12.4	23.6	64.0	2.3	26.5	71.2	6.5	27.1	66.4	2.9	22.4	74.7
1996	11.6	22.6	65.8	2.1	25.0	72.9	6.4	30.4	63.2	3.0	20.0	77.0
1997	11.0	21.4	67.6	2.1	23.7	74.2	6.2	30.5	63.3	-	-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1997) 및 『부산지역경제연보』(1998): 통계청, 『지역내총생산』(1998).

3. 부산지역의 벤처기업현황

〈표 12〉에서 보는 바와 1998년 7월 현재 부산·울산지역에는 73개 사의 벤처기업이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데 이 중 65개 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부산의 벤처기업의 수는 서울, 경기, 인천 다음으로 많은 것이며, 전국의 총 벤처기업수 중 7.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벤처기업의 유형별 분포를 기준으로 보면 부산·울산지역의 경우는 벤처캐피탈 지원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경우는 연구개발과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부산의 벤처기업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기 전 1997년 봄을 기준으로 한 부산의 벤처기업은 20여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의 조사에서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그만큼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정책당국에 의한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중소기업 가운데

많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97년 이후 부산에서도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정책이 강조되었으며 또한 중앙부처의 지원도 상당히 받고 있는 바, 그 한 사례가 1997년 6월에 설립된 신모라 공단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이다. 여기에 14개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또한 창업보육센터에는 10개의 업체가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지원으로 지난 연말 영도구에 정보통신연구원을 설립하여 컴퓨터활용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 대학생들에게 연구여건을 마련하여줌으로써 유능한 젊은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관련 분야에서의 벤처기업 창업이 기대된다.

〈표 12〉 지역별·유형별 벤처기업 현황

(단위: 개,%)

유형 지역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특허기술 개발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계
총계	230(25.4) (100)	307(33.5) (100)	329(36.1) (100)	45(4.9) (100)	911(100) (100)
서울	66(19.4) (28.6)	147(43.1) (47.9)	103(30.2) (31.3)	25(7.3) (55.6)	341(100) (37.3)
부산·울산	30(41.1) (13.0)	15(20.5) (4.9)	24(32.9) (7.3)	4(5.5) (8.9)	73(100) (8.0)
대구·경북	7(13.8) (3.5)	15(25.9) (4.9)	33(56.9) (10.0)	2(3.4) (4.4)	57(100) (6.4)
광주·전남	3(27.3) (1.3)	4(36.4) (1.3)	4(36.4) (1.2)	0(0.0) (0.0)	11(100) (1.2)
대전·충남	18(45.0) (7.8)	15(37.5) (4.9)	6(15.0) (1.8)	1(2.5) (2.2)	40(100) (4.4)
인천	20(23.5) (8.6)	24(28.2) (7.8)	39(45.9) (11.9)	2(2.4) (4.4)	85(100) (9.3)
경기	42(23.1) (18.1)	65(34.6) (20.5)	70(38.5) (21.3)	7(3.8) (15.6)	184(100) (19.9)
강원	2(40.0) (0.9)	2(40.0) (0.7)	1(20.0) (0.3)	0(0.0) (0.0)	5(100) (0.5)
충북	14(31.8) (6.1)	5(11.4) (1.6)	24(54.5) (7.3)	1(2.3) (2.2)	44(100) (4.8)
전북	3(14.3) (1.3)	5(23.8) (1.6)	11(52.4) (3.3)	2(9.5) (4.4)	21(100) (2.3)
경남	24(48.9) (10.8)	10(20.4) (3.9)	14(28.6) (4.3)	1(2.0) (2.2)	49(100) (5.4)
제주	1 (0.4)	0 (0.0)	0 (0.0)	0 (0.0)	1(100) (0.1)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명단』, 1998.7.

최근 부산대 전자공학과와 졸업생들에 의한 벤처기업 창업, 한국해양대학 기계공학부의 졸업생에 의한 벤처기업 설립, 그리고 인제대학의 졸업생들의 벤처기업 창업 등은 앞으로 부산지역의 벤처기업 창업 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998년 4월 부산에서 부산테크노엔젤클럽이라는 엔젤들의 모임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8월에는 첨단의료장비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주)비엠텍을 설립하여 부산에 새로운 벤처기업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앞으로

이들 엔젤의 활동은 벤처기업이 타 수도권이나 대전 등에 비해 빈약한 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벤처기업의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 바 우수한 기술과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은 지역내의 대학이 우선 앞장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부산지역내 대학간의 기술 Network를 통한 기술정보 및 개발의 공유가 중요할 것이며 나아가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고 보여진다.

4.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지방정부 및 기관의 역할: 부산을 중심으로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육성정책 방안수립과 더불어 지방정부 및 기관(지역 대학) 차원의 지원정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은 기술 및 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의 육성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그 토양을 가꾸어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형성과정에서도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¹⁹⁾. 우선 우리나라는 이제 막 벤처기업에 대한 붐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게다가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과학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입수와 유통이 느린 지방에서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대덕연구단지 외의 지역에서 벤처기업을 단시일내에 육성,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업구조가 컴퓨터, 통신 및 정보기술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산업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게 되면 지역경제는 새로운 산업을 선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부가가치창조의 대열에서도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에 비해 벤처기업의 발전에 있어 여러 면에서 장애 요인이 있지만 미래의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지식 집약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벤처기업의 육성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기존의 산업(신발, 섬유 등) 분야도 기술혁신이나 지식집약을 통해 질적 고도화를 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그것도 여러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논의할 때는 기존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이들도 새로운 시각에서 일종의 벤처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을 때 우선 수행되어야 할 정책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창업활성화 분위기 조성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도전의욕이

19) 실리콘밸리는 1940년대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교수가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한 결과 오늘날의 벤처기업 메카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바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한 기업가로 볼 때 이러한 기업가들이 많이 양성되고 이들이 많은 기업을 창업할 때 경제는 더욱 활력을 떨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기술과 경영 능력을 지닌 기업가에 의한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대학에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적극 개설하고,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의 상업화를 적극 추진함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발전과정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 교수가 1940년대부터 산학협동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업화를 시도해 온 결과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도 지역 대학의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우선 부산에서의 벤처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산지역대학의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창업 교육을 강화하여 즉 경영과 기술을 연계하여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인지도 를 높여 줌과 동시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부산지역의 사회분위기를 기업가를 우대하며 실패한 기업가에게도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기업경영의 실패를 죄악시 않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재기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에서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바 부산지역의 대학 및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 및 유인이 필요하며 특히 고급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산업(기능)인력의 양성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인프라 구축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지닌 벤처기업가는 자금이 부족하여 기술 개발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힘들고 또한 급변하는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산지역의 벤처기업 경영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바 부산지역의 각 대학은 대학 실험실 등을 벤처기업 창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내에 창업보육센터(BI) 내지 기술창업보육센터(TBI)를 설립하여 창업의 욕이 강하고 우수한 기술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여 우수한 두뇌와 산업체가 연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하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창업에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발전 과정에서 스탠포드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신모라공단과 같은 새로운 공단(아파트형 공장)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좋지만 벤처기업은 공해산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많은 제조업이 외곽으로 벗어나고 있는 사상 공단을 벤처기업 공단으로의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부산에서 유능한 벤처기업가가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산의 정책당국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영정보단지를 완공하여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의 육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다. 자금지원의 원활화

벤처기업의 경영자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가 자금조달인 바 이를 보다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적인 금융기관과는 다른 투자안을 모색하는 벤처캐피탈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많은 개인자산가(angels)를 발굴하여 벤처기업의 후원자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개인자산가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계상의 우대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경영자문을 할 수 있는 개인자산가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항상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보스톤의 경우 지역주민이 회원이 되어 운영되는 Venture Planners Network를 통해 유망한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문도 행하는 등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육성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각 지방에서의 엔젤을 적극 발굴하거나 일반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를 비롯한 지방의 경제단체 및 상공인이 협력하여 지역내의 벤처기업가를 발굴·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복돋을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투자자로서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벤처기업의 자금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수익을 달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벤처기업이 쉽게 기업을 공개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KOSDAQ시장의 확대개편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종 자금지원 방안과 아울러 기존의 각종 금융기관도 이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벤처기업육성과 부산경제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80%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인하고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의 미디어밸리 조성계획, 대구시의 벤처기업육성 노력, 강원도의 생물공학 벤처기업육성,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중심의 벤처기업육성, 부산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설립 등은 앞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특히 지가가 높고 공장부지도 부족하며 현재 빈사 상태에 처해 있는 지방 대도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기술 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시도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산업패턴을 고려할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본의 많은 지방정부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자금지원, 세제혜택, 창업보육시설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가. 벤처기업육성과 부산 경제구조의 고도화

현재 침체 상태에 빠진 부산경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서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의 육성은 앞으로 부산경제도 점차 정보통신 및 지식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벤처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므로 정책 당국은 하루 속히 기술 및 지식 집약형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종국적으로 부산의 산업구조를 미래산업의 발전 방향에 맞게 대처해 가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나. 벤처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 효과

1980년대 미국의 많은 대기업이 종업원을 대량으로 해고하였지만 벤처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컴퓨터, 통신 그리고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이 많이 창업되면서 대기업에서 해고된 인력을 상당히 흡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꽤기 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성공하여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부도를 내면서 대량의 종업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불황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이 종업원을 감축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은 새로운 일터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벤처기업의 육성과 균형있는 인력의 활용

미국에 있어서의 벤처기업은 최첨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창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력과 끈기를 바탕으로 할 경우는 꼭 고급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능인이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기도 하고 또한 우수한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첨단 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균형있는 인력개발은 필요한 바,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과 발전 과정에서 균형있는 인력개발의 중요성은 실리콘밸리의 발전과정에서 입증되고 있기도 하다²⁰⁾. 즉 새로운 기술개발은 최고급 두뇌 집단(스탠포드대학과 UC, Berkeley대학 출신으로 구성)에서 이루어지지만 개발된 아이디어와 기술을 평가하고 실험하는 역할은 우수한 기술자(테크니션)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두뇌집단에 의한 개발된 아이디어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유능한 기능인(테크니션)에 의한 정확한 평가와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품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때 벤처기업의 육성에 있어 기능인의 중요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벤처기업의 메카로 자리잡은 실리콘밸리는 우수한 두뇌집단과 그 손발이 되는 기술자집단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인력공급체계는 우수한 두뇌집단층은 두텁지만 기술자층이 얇아 반도

20)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기업가로 알려진 AIO의 김인곤 사장은 우리나라에서 공고를 졸업한 비행기 정비 기능사였으나 본인의 강한 기업가정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AIO를 창업하여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화이바의 조용준 회장은 병원의 조수로 있으면서 뉴시대의 소재개발에 대한 집념을 계기로 하여 이제는 항공기 제조부품에 사용되는 유리섬유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것은 기능인도 얼마든지 기업을 창업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옹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체 산업 등이 실리콘밸리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보스톤의 경우와는 상이하게 균형있는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²¹⁾. 이러한 미국의 경험에서 볼 때 하이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두뇌집단과 그 손발이 되는 우수한 기능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때 앞으로 우수한 두뇌집단의 육성과 더불어 유능한 기능인력의 양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경남지역에서의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체계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 바 앞으로 이 지역의 우수한 대학에서 배출되는 고급두뇌인력과 우수한 기능인력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

1980년대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많은 대기업은 종업원의 감원을 통해 기업경영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은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와 최근에 이르러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창업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신규고용이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부산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중화학 공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육성은 궁극적으로는 지역내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오는 21세기가 정보화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새롭게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분야에 많이 진출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역내의 기술혁신, 기술축적 및 집적

첨단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창업하는 벤처기업은 부산권의 기술수준을 제고하는 등 부산의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지역의 기술축적 내지 집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나라의 국부도 이제는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창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 지역의 부를 새로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축적과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역내에서 벤처기업에 의한 기술혁신과 기술축적은 대학과 업계 등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협동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또한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벤처기업을 적극 창업하며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나올 때 지역의 산업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산업구조로 새롭게 개편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1) 印牧直文(1995), pp. 45-48.

바.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미래 산업의 리더로서의 부상

부산경제가 벤처기업의 육성과 더불어 고도화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중전의 중화학공업에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연성이 강조되는 첨단산업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이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S/W), 통신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지역이 되어 나라경제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산업을 주도할 정보, 통신 등의 산업은 중화학공업에 비해 넓은 공간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간이 좁은 대도시에서도 육성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부산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VII. 결 론

본 고에서는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함을 고찰하여 보았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이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특히 벤처기업의 육성을 부산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살펴본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무엇보다도 우선 부산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머물며 벤처기업을 창업하도록 하는 유인제도를 시의 정책당국, 대학 그리고 각종 단체가 노력을 기울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에 설립되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상, 금융상의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대학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강화도 필요하며 또한 기술창업보육센터를 마련하여 유능한 인재가 부산지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근간으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이들 우수한 인재가 지방에서 벤처기업을 영위하면서도 정보수집 면이나 기술개발 면에서 수도권에 뒤지지 않도록 지역내 대학간의 기술 네트워크(Network)을 통한 기술정보 및 개발에 대해 벤처기업과 공유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대학은 기술개발의 선도와 창업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부산의 관련 기관이 벤처기업을 위한 건물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입주한 모라의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바, 즉 벤처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관심과 엔젤로서의 참여 그리고 경영자문 활동 등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스톤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지역 주민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망한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의 지원과 경영상의 문제를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업에 대한 애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 자연 부산에서 사업하는 기업가는 물론 타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유능한 기업가가 부산으로 사업체를 옮겨 와 사업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 앞으로 부산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부산이 이

러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산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유능한 인재를 부산에 많이 머물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비롯한 다른 여러 환경을 기업하기에 알맞게 가꾸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보았듯이 원활한 인력공급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유능한 고급두뇌집단의 공급과 아울러 이러한 고급두뇌의 손발이 되는 우수한 기능인력이 제대로 공급될 때 벤처기업의 육성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볼 때 기능인력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강조하면서 오직 첨단기술만을 가진 벤처기업의 육성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산업 중 여러 측면에서 비교적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태리의 섬유산업과 독일의 기계공구산업이 첨단산업이 아니면서도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데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문수(1987),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김선홍(1997), 「벤처기업의 현황과 과제」, 벤처기업협회.
- 남상우 외(1991), 『벤처캐피탈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박준경·김정호(1995), 「2010년의 산업구조 전망」, 『한국개발연구』, 제17권 1호, 3-39.
- 박준경(1997),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성소미(1995), 『기술혁신의 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성소미(1996), 「산업구조조정 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KDI정책연구』, 제18권 제3/4호, 129-175.
- 양현봉·주현·조영삼(1997),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 이각범·송위진(1994), 「실리콘밸리의 첨단중소기업과 조직환경」, 『지역연구』, 제3권 제3호,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37-54.
- 이광형(1997), 『벤처기업 나도 할 수 있다』, 동아일보사.
- 이기환·최범수(1996),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장외시장의 역할제고」, 『재무관리논총』, 3권1호.
- 이기환(1998),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주식시장의 역할」, 『벤처경영연구』, 창간호, 183-212.
- 이기환·임병균·최해술(1998), 「벤처기업 IPO의 장단기성과와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역할」, 『증권·금융연구』, 제4권 1호,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49-80.
- 이덕훈 외(1995), 『중소기업의 발전과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
- 이영환(1994), 「실리콘밸리 첨단산업지구의 형성과 발전」, 『지역연구』, 제3권 제3호,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1-14.
- 이장우(1997), 「한국벤처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미 비교를 통한 벤처산업발전전략』, 벤처기업협회·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 1997.4.25, 73-88.
- 이진주(1986),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지원사업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 임정덕·최병호(1996) 『지방화시대의 지역산업정책』, 비봉출판사.
- 임정덕(1997),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 부산일보 및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정이환(1994), 「실리콘밸리 첨단산업발전의 사회적 배경」, 『지역연구』, 제3권 제3호,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15-36.
- 중소기업청(1997),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종합대책』.
- 최범수·이기환(1996),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장외시장의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투자회사협회(1995), 『일본의 21세기 벤처비즈니스』.
- 홍성도(1997),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탈』, 한국생산성본부.
- 印牧直文(신충우譯)(1995), 『실리콘밸리의 파워』, 대청정보시스템.
- 長田和久(1996), 「經濟活性化の鍵を握るベンチャー企業」, 『投資月報』, 日興リサーチセンター, 1月號, 48-73.
- 長田和久·漆畑春彦(1995), 「歐洲の新規公開市場と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 『投資月報』, 日興リサーチセンター, 5月號, 4-29.
- 長田和久·中野章男·中村博·荒木英次(1994), 「美國ベンチャービジネス·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の實態」, 『投資月報』, 日興リサーチセンター, 11月號, 14-39.
- 長田和久·中野章男·中村博·荒木英次(1994), 「NASDAQを中心とした美國店頭市場」, 『投資月報』, 日興リサーチセンター, 5月號, 4-21.
- 後藤守男(1995), 「벤처企業育成と證券市場の役割」, 『投資月報』, 日興リサーチセンター, 9月號, 4-25.
- (1993), 「産業活性化の鍵を握る創業支援システム」, 『投資月報』, 日興リサーチセンター, 12月號, 4-19.
- Barry, C.B., Muscarella, C.J., Peavy, III, J.W. and Vetsuypens, M.R.(1990), "The Role of Venture Capital in the Creation of Public Compan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7, 447-471.
- Business Week*, 31 March 1997.
- Economist*, 25 January 1997 and 29 March 1997.
- Forbes*, January 1, 1996.
- Hughes, A. and Stroey, D.J. (eds.) (1994), *Finance and the Small Firm*, London: Routledge.
- Lerner, J. (1995), "Venture Capitalists and the Oversight of Private Firms", *Journal of Finance*, 50(1), 301-318.
- NASD, *NASDAQ Stock Market: Fact Book*, 1996.
- Timmons, J.A. (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